

兒童이 知覺한 心理過程的 家庭環境 및 養育態度와 有能感간의 關係*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Parenting Attitude, and Competence Perceived by Children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남기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박정희

Dept. of Home Economic, Gyeongsang National Univ.

Professor : Lee Nam Gi

Dep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Park Chung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parenting attitude and competence perceived by children. The subjects were 1,022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six elementary schools in Daegu.

K-SPCC was employed to access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DFCS-CP and CRAS-CC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and parenting attitu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s,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이 연구는 '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로 이루어졌음.

1.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parenting attitude, important level of competence and sex difference had a direct impact on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Through parenting attitude and important level of competence, the psychological process home environment and sex difference also had an indirect impact on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2.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had influence on parenting attitude and important level of competence. Sex difference and parenting attitude had influence on important level of competence.

3. In order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and competences of five domains, multiple regression was applied. The six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1) achievement press, 2) language model, 3) academic guidance, 4) exploratory experience, 5) perceptual stimulation, and 6) study habits.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Boys' scholastic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academic guidance, exploratory experience and perceptual stimulation, whereas girls' scholastic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achievement press, academic guidance, exploratory experience and perceptual stimulation.

② Boys' social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whereas girls' social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and academic guidance.

③ Boys' athletic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academic guidance and perceptual stimulation, whereas girls' athletic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and achievement press.

④ Boys' physical appeara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academic guidance and achievement press, whereas girls' physical appeara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⑤ Boys' behavior conduct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and academic guidance, whereas girls' physical appearance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exploratory experience and perceptual stimul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작용하는 심리적, 내재적 중요 요인으로 호기심, 유구, 내외 통제방향, 원인귀속 등은 활발히 연구되어 왔지만 자아 또는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이 아동의 자존감이 성숙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White, 1959; Coopersmith, 1967; Bandura, 1971; Harter, 1982).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동에게 세도 자아는 개인이라고 하는 작은 우주의 핵심이고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며 자기의 환경을 소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성인의 자아가 그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듯이 아동의 자아도 그의 생활과 발달을 촉진 또는 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들은 발달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아

동의 행동을 촉발, 유지하는 동기요인으로서 자기 유능감 또는 효능감의 동기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White의 연구(1959)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White의 유능감 이론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다. 그러나 Harter(1979)가 아동용 자기 유능감 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PCSC)를 개발하면서 유능감 지각에 대한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달라졌다(Harter, 1987; Lillian, 1990). Harter(1982)는 아동이 모든 숙련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유능감을 동일하게 지각하지 않으며, 8세 이상의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학업, 사회, 신체, 운동, 품행)에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아동이 지각한 자기 유능감과 부모 혹은 교사가 평정하는 유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역별 자기 유능감에 대한 아동의 중요도 인식수준은 아동의 자기 유능감 지각과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가정했다(Harter, 1982, 1986, 1987, 1988). 국내에서도 Harter의 유능감 척도를 이용한 연구는 김치영(1987), 공인숙(1989), 박정희(1989) 등에 의해 새롭게 연구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영역별 아동의 자기 유능감이 아동의 행동 또는 수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작용한다는 것은 Linda(1981), Paul(1992), 김치영(1987), 공인숙(1989), 이주리, 유안진(1991) 등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자기 유능감이 동기적 요인으로서 행동을 촉발,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행동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의 유능감 형성과 발달에 작용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유능감의 형성과 발달을 자극하는 요인을 찾고 그것을 통해 자기 유능감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 유능감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Harter(1985, 1988), Ferguson(1987), 공인숙(1989), 우희정(1993) 등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Nieuwsme(1988)는 가정의 사회

적 지위를 외생변수로 하고 어머니의 행동, 아동의 유능감을 내생변수로 하여 가정환경과 아동의 유능감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고, 우희정(1993)은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외생변수로 하고 어머니의 효능감,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여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했다. 이 두 연구는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정환경중 심리과정적 환경변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에 치중했으며, 또한 이들 변인간에는 주로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Dave(1963)의 6개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에 양육태도가 포함되어 있어 유능감 지각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양육태도만을 따로 분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 본다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양육태도는 다양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태도를 따로 분류하여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성차를 외생변수로 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요도 인식수준과 유능감 지각을 내생변수로 하는 인과모형을 통해 아동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유능감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들 중에 어떤 변인이 유능감에 얼마만큼의 예언력을 가지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변인이 예언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서 어떠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이 생활의 각 영역에서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가설 1.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적극적 지지, 소극적 지지)과 성차(남, 여)를 외생변수로 하고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수용, 통제),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 유능감 지각을 내생변수로 하는 동시 방정식 모델로 하여 추정한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가설 2.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에서 6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변인들(성취압력, 언어모형, 학습조력, 탐색경험, 지적경험, 노동경험)의 예언력은 유능감의 5개 하위영역(학업, 사회, 운동, 신체, 품행)과 성차에 따라 다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자기 유능감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서서히 획득, 발달된다고 했다(White, 1956; Harter, 1988, 1985).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공동적인 산물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편의 작용이 결핍되었을 때에 인간으로서의 위만한 발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간형성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상호작용하게 되며 환경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사실과 인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개인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간형성의 환경조건과 생활하는 시간으로 보아 가정환경이 학교환경, 사회환경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은 출생하면서 부터 운명적으로 가족과 관계를 맺는 일차적인 사회로서 개인이 최초로 모든 경험을 습득하는 사회생활의 장이며 행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곳으로 인간은 가정을 통해 성격, 가치관, 태도, 습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인간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장 급격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초기 환경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Bloom, 1974; Freud, 1947).

Wolf(1964)는 가정환경을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으로는 교육, 지

능, 직업, 학력, 수입, 거주지 등이고, 가정환경의 과정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관계를 들고 있다. Marjoribanks(1987)는 가정환경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의 도구적 지향과 정서적 지향을 측정하는 일련의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가족의 학습환경을 측정했다. 그에 의하면 부모의 도구적 지향은 교수-학습 상황과 연관된 특정한 부모-아동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이며 정서적 지향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특징짓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려는 부모의 시도와 관련된다. 가정환경의 압력변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포부(기대), 부모자신의 포부, 기대에 대한 부모의 강화, 언어사용에 대한 관심, 자녀교육의 진척에 대한 이해, 교육활동에서 가족의 관여, 독립에 대한 압력, 가치지향이 포함된다. Bloom(1974)은 사회계층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지위 측정치들은 어떤 목적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측정치들이 신체적 성장, 언어능력, 지능, 학습, 성격 특징들과 같은 인간의 특징들에 대한 환경 측정치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하였고, 이 분야에서 더 발전된 연구는 가족과정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Bloom(1974)은 Dave가 부모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보다는 부모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동의 초기 학습환경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아주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Dave(1963)의 연구가 가족과정 변인들에 대한 연구의 시조라고 하였다. Dave는 가정환경을 주로 과정변인으로 보고 6가지의 과정변인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성취압력: Sears와 Lewin(1957)은 부모들이 설정하고 있는 보상과 기대의 기준은 아동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아동이 자기의 성취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성취압력 변인에는 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포부, ② 부모 자신에 대한 포부, ③ 학업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④ 학업 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 ⑤ 학업성적을 위한 강화체계, ⑥ 자녀의 교육적 성장에 대한 지식의 정도, ⑦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준비와 계획 등 7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언어모형: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의 질이 언어발달의 초기 단계에 가정에서 아동에게 적용하는 언어모형의 종류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정 환경은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Bernstein, 1961). 언어모형 변인은 ①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 ② 어휘 및 문장 형태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 ③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부모의 노력 등이다.

학습조력: 부모가 아동의 교육적 과정을 인식하고, 아동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도와주고, 균형잡힌 교육적 성장에 필요한 과제의 성질을 암시해주고, 아동에게 성취감을 계발시켜 주는 것등이 포함된다. Leonard(1952)는 아동의 적극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해야 할 역할로서, 아동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주도성을 조장하고, 아동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와 함께 책임을 부여하고, 돕는 방법을 제공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습조력 변인은 ① 학업문제에 대한 조력의 정도, ② 학업문제에 대한 조력의 질, ③ 학습자료의 활용도 등이다.

탐색경험: 가정의 활동성은 아동에게 일반적인 경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외적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이 모두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며,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경험은 바로 새로운 자극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극은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식, 1976). 탐색경험 변인은 ① 가정 내 활동의 범위와 내용, ② 가정 외의 활동의 범위와 내용, ③ TV 및 기타 매체의 활용, ④ 책, 정기간행물, 도서관의 이용 등이다.

지적경험: Bruner(1962)는 가정환경의 지적활동이 자극 유발 성숙의 범위와 개념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자료 변형을 포함한 정신기능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제공되는 지적자극 변인에는 ①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난감, 게임, 취미의 성격과 질, ②

일상 생활에서 사고와 상상을 위한 기회 등이다.

학습습관: 가정에서 강조하는 일의 습관 형성은 대부분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습관은 가정의 보다 일반적인 작업습관, 가정생활의 일상구조 및 부모의 기대 및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습관은 환경을 반영하고 습관은 환경의 요구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Baldwin, 1955). 가정에서 강조하는 일의 습관변인은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구조와 규칙성의 정도, ② 교육적 활동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이다.

Harter(1986)는 아동의 발달수준과 특정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자아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고,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과 부모, 친구, 생활에서의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는 아동들에게 자아에 대한 묘사와 자기상의 전개, 자아 존중감과 유능감에 대한 자기지각을 구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성취기대들을 강화시키고, 지지해 주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은 부모와 일치되는 유능감에 대한 자기지각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Harter, 1988b, 1983; Phillips, 1987), 타고난 호기심(탐색경향)을 장려할 때 아동은 더욱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하려고 하고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지속하려는 경향성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Hess & McDevitt, 1984; Kagan, 1980; Kagan & Freeman, 1963; Loeb et al., 1980). Dixon(1986)은 가정환경이 개인의 자아개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가족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 Ferguson(1987)은 청년 후기에서 유능감을 예측하기 위하여 학령 전기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측정 결과 초기 부모-아동 간에 상호작용의 질이 청년후기의 유능감과 지적인 성취의 예측자가 됨을 발견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온정(nurturance)과 제한(restrictiveness)의 두 차원으로 특징지었다(Becker, 1964; Rickel & Biasatti, 1982; Paul, 1992). 온정적 양육태도(nuturance)는 아동의 주위가 행위의 결과, 특정 과제 또는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Hess & McDevitt, 1984; Kagan & Freeman, 1963; Roberts, 1986; Paul, 1992).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는 아동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Brooks, 1984; Hess & MacDevitt, 1984; Hoffman, 1979; Lepper, 1981; Trickett & Kuczynski, 1986). 더우기 아동의 능력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유사한 뜻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험적 토대가 연마된다. 유능감에 대한 지각은 부모의 신념과 기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아동의 양육전략이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긍정적인 지각의 발달을 향상시키며, 타고난 능력과 교사의 평가와 일치하는 영역특정적 유능감의 지각에도 도움이 된다 (Paul, 1992).

제한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숙단계, 수준 또는 유능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나이에 적합한 자율적 발달과 개성의 발달을 억압시킬 수 있다 (Halpern, 1964; Maccoby, 1980; Paul, 1992). 자율적 노력에 대한 좌절은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주며 독립적인 활동을 통제하는데 무력함을 반영해 주는 행동을 보인다 (Baumrind, 1972 a; Kagan, 1980; Loeb et al., 1980; Graybill, 1978; Rickel & Biasatti, 1982; Robert, 1986). 자율적인 활동이 좌절되거나 실패할 때 아동은 스스로를 가치롭거나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며 (Harter, 1978 b), 성공과 실패를 외적근원에 귀속시키게 되고 (Hess & McDevitt, 1984)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자기가치감에 대한 의욕심은 강화된다 (Baumrind, 1972; Becker, 1964).

Baumrind(1968, 1972, 1986)는 따뜻하고, 온정적이며, 성숙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권위있는(authoritative) 부모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권위주의(authoritarian) 부모 보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더 많으며, 학령 전 아동의 유능하다고 판정된 아동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그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동시에 통제적이었다고 밝혔다. 광인숙(1989)은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인지적,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가장 높았고,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도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우희정

(1993)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발달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 자기유능감 지각 등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Becker, 1964; Schaefer, 1965; Dielman, 1972; Baumrind, 1978; Rohner, 1980; Saaveda, 1980; Harter, 1982, 1988; Paul, 199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구직할시 소재 6개 국민학교 4, 5, 6학년(지필검사에서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연령) 남여 학생 가운데 무선 표집한 1,022명이었다.

남학생은 544명(4학년: 174명, 5학년: 184명, 6학년: 170명)이었고, 여학생은 478명(4학년: 137명, 5학년: 171명, 6학년: 137명)이었다. 학년 별로는 4학년은 311명(남학생: 174명, 여학생: 137명), 5학년은 355명(남학생: 184명, 여학생: 171명), 6학년은 356명(남학생: 186명, 여학생: 170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자기지각검사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

아동이 자기 스스로 지각, 평가하는 자기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arter (1979)가 만든 아동용 자기지각 유능감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PCSC)를 개정한 1985년판 자기지각 유능감척도(SPPC)를 우리 문화와 언어에 맞도록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PPC는 총 46개의 리크르트식 4품등 평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업 유능감, 사회 유능감, 운동 유능감, 신체(용모)유능감, 실천적 품행유능감, 총체적 유능감 등의 6개의 하위척도와 5개 영역(학업, 사회, 운동, 신체, 품행)의 유능감 지각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1개 보조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지각검사의 내용타당도는 3명의 심리측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각검사의 반분신뢰도계수는 .62(학업 유능감), .45(사회 유능감), .68(운동 유능감), .74(신체 유능감), .49(품행 유능감), .46(전반적 자기유능감), .82(총점)이다. 그리고 Cronbach alpha 계수로 추정된 내적 합치도계수는 .61(학업 유능감), .39(사회 유능감), .65(운동 유능감), .64(신체 유능감), .48(품행 유능감), .49(전반적 자기유능감), .81(총점)이다.

(2) 가정환경검사

가정환경검사는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의 과정적인 영향을 사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Dave(1963)의 가정환경 과정변인 조사용 면접 조사표에 있는 질문 항목들을 아동 자신이 지각한 가정환경 과정변인에 대해 자기 보고식으로 평정하게 하는 리커트식 5품등 평정 문항을 서숙영(1993)의 도구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6개 하위척도는 각각 7개의 문항으로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위척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Dave가 정의한 하위영역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 검사의 총점이 높은 가정환경은 적극적 지지, 낮은 가정환경은 소극적 지지를 나타낸다.

Dave(1963)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면접 조사표를 우리 말로 번역하여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다른 여러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서숙영(1993)의 보고에 의하면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적, 가정의 계층지수, 부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지위지수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63, .43, .43, .43, .45이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들 통계치들은 Dave 자신이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면접조사표의 응답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와 함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검사의 타당도를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본다.

가정환경검사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38(성취압력), .65(언어모형), .41(학습조력), .70(탐색경험), .69(지적경험), .70(작업습관)이다. 그리고 Cronbach alpha

계수로 추정된 내적합치도 계수는 .54(성취압력), .66(언어모형), .45(학습조력), .68(탐색경험), .67(지적경험), .68(작업습관), .74(총점)이다.

(3) 양육태도검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사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chaefer(1965)가 만든 양육행동 조사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 MBRI)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MBRI는 통제성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각 12개, 거부성과 애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각각 11개로 총 46개의 리커트식 5품등 평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는 수용성과 자율성을 합해 수용적 태도로, 통제성과 거부성을 합해 통제적 태도로하는 수용-통제라는 양극성의 단인자(bipolar unitrait)로 나타낸다.

Schaefer(1959)의 MBRI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어머니의 외향성-내향성, 통제성-자율성, 독립성-의존성, 인지양식(장독립적-장의존적), 자기평가(긍정적-부정적)와의 관계를 분석한 이원녕(1983)의 연구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검사의 공인 및 구인 타당도로 대체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판 MBRI와 내향성-외향성과의 상관은 .69, 통제성-자율성과의 상관은 .92, 독립성-의존성은 .84, 인지양식과의 상관은 .68, 자기평가(긍정적-부정적)과의 상관은 .81이다.

양육태도검사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81(수용성), .53(자율성), .57(통제성), .78(거부성), .79(총점)이다. 그리고 Cronbach alpha 계수로 추정된 내적합치도 계수는 .81(수용성), .55(자율성), .63(통제성), .78(거부성), .79(총점)이다.

3. 자료분석 및 처리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적극적 지지, 소극적 지지)과 성차(남, 여)를 외생변수로 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수용, 통제),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 유능감 지각을 내생변수로 하는 동시 방정식 모델을 설정한 다음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5%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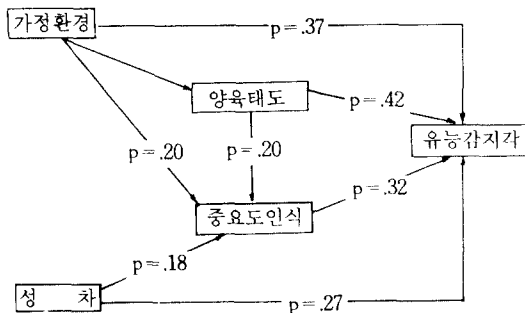
또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하위요인과 유능감 지각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의 6개 하위척도(성취압력, 언어모형, 학습조력, 탐색경험, 지적경험, 노동경험)의 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능감 지각의 5개 하위척도(학업, 사회, 운동, 신체, 품행)의 득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했다.

IV. 결과 및 논의

1.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양육태도,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 성차가 유능감 지각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성차,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이 유능감 지각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환경과 성별을 외생 변수로 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 그리고 유능감지각을 내생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델을 설정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생변수인 가정환경, 성차와 내생변수인 양육태도, 중요도 인식수준, 유능감 지각간의 경로도형



심리과정적 가정환경($p=.37$), 성차($p=.27$),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P=.42$),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p=.32$)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p=.63$)와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p=.20$)에 유의한 영향력을 작용한다. 그러나 성차변인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p=.18$)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p=.20$)에 작용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외생변인인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성차는 내생변인인 유능감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수준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유능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변인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성차, 양육태도, 중요도 인식수준 모두 유능감 지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성차는 양육태도와 중요도 인식수준을 통해 간접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이 유능감 지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 만큼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이 양육태도나 중요도 인식수준을 통해서 아동의 유능감 지각에 대해 상승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능감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공인숙, 1989; 우희정, 1993; Becker, 1964; Keasey, 1970; Baumrind, 1967; Coopersmith, 196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부모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성취기대를 강화시키고 지지해 주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은 자기유능감에 대한 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견해(Harter, 1985; Phillips, 1987)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차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경로관계는 유의하지 않지만 중요도 인식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의 부모는 자녀의 성

〈표 1〉 가정환경, 성차, 양육태도, 중요도 인식수준, 유능감 지각간의 경로계수 분할표

상관변인	상관계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정환경 - 유능감지각	.73	.37	.36	.73	
성 차 - 유능감지각	.33	.27	.06	.33	
양육태도 - 유능감지각	.59	.42	.06	.48	.11
중요도지각 - 유능감지각	.39	.32		.32	.07
양육태도 - 중요도지각	.20	.20		.20	
가정환경 - 중요도지각	.33	.20	.13	.33	
성 차 - 중요도지각	.18	.18		.16	
가정환경 - 양육태도	.63	.63		.63	

별에 따라 양육태도와 기대수준을 달리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녀의 능력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진다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볼수 있다. 이 결과는 우희정 (1993), Cause(1987), Piers & Harris (1964), Wylie(1979)와 일치하나 부모가 여자아동 보다 남자아동에게 더 많은 성취 기대와 포부를 가진다는 Frankle과 Rollins(1982), Hoffman(197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의 중요도 인식이 유능감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 효능감이란 행동의 변화가 외적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라는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 뿐 아니라 사고 유형과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Bandura(1981)의 견해를 지지한다.

2.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의 6개 하위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능감 지각의 5개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 어떤 변인이 유능감 지각의 하위영역에 얼마만큼의 예언력을 가지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변인이 예언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환경 변인의 하위척도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영역별 유능감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능감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투입되는 독립변인의 순서는 학업 유능감의 경우 탐색경험($R^2 = .102$), 학습조력($R^2 = .134$), 지적경험($R^2 = .142$), 성취압력($R^2 = .150$)의 순서였고, 사회 유능감의 경우 탐색경험($R^2 = .061$), 학습조력($R^2 = .072$)의 순이며, 운동 유능감의 경우 학습조력($R^2 = .022$), 탐색경험($R^2 = .029$)의 순이며, 신체 유능감은 탐색경험($R^2 = .039$), 학습조력($R^2 = .044$)의 순이며, 품행 유능감은 탐색경험($R^2 = .050$), 지적경험($R^2 = .059$)순이다.

여섯 개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학업 유능감 지각을 설명할 경우 탐색경험, 학습조력, 지적경험, 성취압력만이 약 15%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사회, 운동, 신체영역의 유능감 지각의 경우 일관성 있게 탐색경험과 학습조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품행 유능감 지각의 경우에는 탐색경험, 지적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의 유능감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변인 중 유능감의 하위 영역 모두에 탐색경험과 학습조력이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가정에서는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TV나, 책, 정기간행물 등과 같은 자극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학습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표 2〉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과 유능감 지각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 여 아동)

독립변인	종속변인	상관계수	R	R ²	B	Beta
탐색경험	학업유능감	.320	.320	.102	.0820	.1399
학습조력		.319	.365	.134	.1424	.1945
지적경험		.317	.377	.142	.0893	.1362
성취압력		.003	.386	.150	-.0695	-.0901
constant					12.2007	
탐색경험	사회유능감	.247	.247	.061	.0963	.1832
학습조력		.218	.268	.072	.0799	.1218
constant					14.2504	
학습조력	운동유능감	.150	.150	.022	.0838	.0983
탐색경험		.149	.171	.029	.0668	.0978
constant					14.2534	
탐색경험	신체유능감	.197	.197	.039	.1099	.1490
학습조력		.169	.211	.044	.0839	.0910
constant					13.8154	
탐색경험	품행유능감	.223	.223	.050	.0746	.1427
지적경험		.217	.243	.059	.0736	.1258
constant					14.8147	

〈표 3〉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과 유능감 지각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아)

IV	DV	상관계수	R	R ²	B	Beta
학습조력	학업 유능감	.362	.361	.131	.169	.212
지적경험		.344	.401	.161	.096	.141
탐색경험		.336	.414	.171	.086	.137
constant					10.2555	
탐색경험	사회 유능감	.238	.238	.057	.122	.238
constant					16.069	
학습조력	운동 유능감	.233	.233	.054	.157	.178
지적경험		.197	.247	.061	.34	.099
constant					13.177	
탐색경험	신체 유능감	.237	.237	.056	.117	.158
학습조력		.222	.264	.070	.155	.165
성취압력		-.044	.279	.078	-.095	-.095
constant					14.279	
탐색경험	품행 유능감	.208	.208	.043	.081	.153
학습경험		.185	.227	.052	.072	.106
constant					14.631	

(표 4) 심리과정적 가정환경변인과 유능감 지각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여아)

IV	DV	상관계수	R	R ²	B	Beta
탐색경험	학업	.313	.313	.098	.091	.168
학습조력	유능감	.274	.338	.114	.107	.161
성취압력		-.053	.367	.134	-.115	-.162
지적압력		.290	.378	.143	.080	.129
constant				13.531		
탐색경험	사회	.275	.275	.076	.103	.194
학습조력	유능감	.254	.303	.092	.097	.150
constant				13.180		
탐색경험	운동	.146	.146	.021	.104	.164
성취압력	유능감	-.089	.185	-.3461	-.095	-.115
constant				16.175		
탐색경험	신체	.181	.181	.033	.128	.032
constant	유능감			14.456		
탐색경험	품행	.239	.239	.057	.076	.148
지적경험	유능감	.237	.261	.068	.083	.139
constant				14.554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차에 따라 아동의 유능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여로 구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한 중다회귀분석시 투입되는 독립변인의 순서는 학업 유능감의 경우 학습조력(R²= .131), 지적경험(R²= .161), 탐색경험(R²= .171)의 순서로 17%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사회 유능감의 경우 탐색경험(R²= .057)만이 약 6%정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운동 유능감의 경우 학습조력(R²= .054), 지적경험(R²= .061)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약 6%정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며, 신체 유능감은 탐색경험(R²= .056), 학습조력(R²= .070), 성취압력(R²= .078)이며 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품행 유능감은 탐색경험(R²= .043), 학습경험(R²= .052)이 5%정도의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다.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업 유능감의 경우 탐색경험(R²= .098), 학습조력(R²= .114), 성취압력(R²= .134), 지적압력(R²= .143)의 순서로

14%로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며, 사회 유능감의 경우 탐색경험(R²= .076), 학습조력(R²= .092)이 9%의 설명력이 있으며, 운동 유능감의 경우 탐색경험(R²= .021), 학습조력(R²= .034)이 3% 설명력이 있고, 신체 유능감은 탐색경험(R²= .033)만 설명력이 있고, 품행 유능감은 탐색경험(R²= .057), 지적경험(R²= .068)의 순서로 7%정도의 설명력이 있다.

유능감 지각에 미치는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학업 유능감의 경우 가정환경 변인 중 성취압력이 여자 아동의 지각에 영향을 주고 남자 아동의 지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포부, 학업활동에 대한 관심, 학업성적에 대한 압력, 학업성적을 위한 강화체제 등의 성취압력 가정환경이 여자아동 보다 남자아동에게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 유능감의 경우 남자나 여자 아동 모두 탐색경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특히 남자 아동에게는 학습조력과 성취압력이 유의한 작용을 하며, 품행 유능감에는 남여아동 모두 가정에서 보고 배운 내용과 매체

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V. 결 론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아동의 유능감 지각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보기 위해 경로분석,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성차, 양육태도, 중요도 인식수준 모두 아동이 지각하는 유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성차는 양육태도와 중요도 인식수준을 통해 간접 영향도 미친다.

둘째,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능감 중요도 인식수준에, 성차는 유능감 중요도 인식수준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능감 중요도 인식수준에 각각 영향력을 준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중다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하위척도 특징을 예언변인으로 5종의 자기 유능감을 각각 추정하고자 할 때 6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변인의 예언력은 유능감의 하위 영역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차에 따라 다르다.

(1) 학습조력, 지적경험, 탐색경험은 남자 아동의 학업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여자 아동의 경우 탐색경험, 학습조력, 성취압력, 지적경험이 학업유능감을 예언하는 변인이다.

(2) 탐색경험만이 남자 아동의 사회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탐색경험과 학습조력이 사회 유능감을 예언하는 변인이다.

(3) 학습조력과 지적경험은 남자아동의 운동에 대한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여자 아동의 경우 탐색 경험과 성취압력이 운동에 대한 유능감을 예언하는 변인이다.

(4) 탐색경험, 학습조력, 성취압력은 남자아동의 신체 용모에 대한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여자 아동의 경우 탐색경험만이 신체 용모에 대한 유능감을 예언하는 변인이다.

(5) 탐색경험, 학습조력은 남자아동의 품행에 대한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언하고 여자 아동의 경우 탐색경험과 지적경험이 품행에 대한 유능감을 예언하는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지각검사는 검사의 타당도를 유출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많지만 준거관련 타당도를 직접 추정할 자료가 없고 이론적으로 탐색, 확인한 내용타당도만 제시되어 있어 자기지각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가 나올 때까지 연구결과의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자료수집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결론의 일반화는 대구시 규모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경향성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5) 서숙영(1993) 가정의 환경적인 과정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적의 관계 : 성취압력과 공부 독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이주리, 유안진(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9,131-144.
- 9)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 10)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 status-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11) Baldwin, A. L.(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12)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13) Baumrind, (1970). Socialization and instrument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26, 194-119.
 - 14) Bernstein, B.(1961). Social structure, language, and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 3(3), 1-15.
 - 15) Bloom, B. (1974). Preface in K. Marjoribanks (Ed.), *Environments for Learning*. Windsor, England: NFER Publishing.
 - 16) Bradley, R. H. & Caldwell, B. M.(1980). Home environment, cognitive competence and intelligence among males and females. *Child Development*, 51, 322-339.
 - 17) Bruner, J. S. (1962).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18)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specific self-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19) Connel, & Ryan, R. M. (1984). A developmental theory of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ducation Quarterly*, 11(4), 64-77.
 - 20)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21) Dave, R. H. (1963).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 22) Dixon, J.R. (1986). The dropout dilemma : Parenting in a preventive mode. EDRS 284095.
 - 23) Ferguson, L. R. (1987). *Family interaction predictors of competence in late adolescence*. EDRS 281 621.
 - 24) Graybill, D. (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100, 45-47.
 - 25) Harter, S. (1985).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26) ———,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27) Hess, R. D., & McDevitt, T. M. (1984). Some cognitive consequences of maternal intervention techniques: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5, 2017-2030.
 - 28) Hoffman, L.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The American Psychologist*, 33, 644-657.
 - 29) Kagan J. (1980). The influence of family. *School Psychology Review*, 2, 298-311.
 - 30) Leonard, C.W.(1952). Why children misbehave ? Chicago : ScienceResearch Associates
 - 31) Lillian, N. C.(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Environment and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2) Linda, N.(1991). *The development of perceived competence [acceptance]adequacy in elementary/grade students : An empirical test of Harter's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33) Maccoby E. E. (1984).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55, 317-328.
 - 34) Marjoribanks, K. (1987). Ability and attitude correlates of academic achievement : Family-group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2), 171-178.
 - 35) Nieuwsma, M.J.(1988). Maternal behavior and child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36) Paul, S. G. (1992).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y*.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37) Perry, D. G., Perry, L. C., & Paul Rasmussen,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38) Phillips, D.(1987). Socialization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mong high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08-1320.
- 39) Piers E. V., & Harris, D. (1969).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Nashville, TN: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 40) Roberts, W. L. (1986). Nonlinear models of development: An example from the socialization of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 1166-1178.
- 41)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Sage Publication.
- 42) Schaefer E. S. (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43) Sears, R.R. & Lewin, H. (1957). Levels of aspiration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28.
- 44) Trickett, P., & Kuczynski, L. (1986). Children's misbehaviors and parental discipline strateg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15-123.
- 45)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233.
- 46) Wolf, R. (1964).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 process variables related to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Chicago.
- 47) Wylie, R. (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2*. Lincoln:University of Nebraska Press.